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3. 4.(금)	담당부서	무역안보정책과 미주통상과 통상법무기획과
담당과장	신성주 과장(044-203-4830) 박성준 과장(044-203-5650) 전동욱 과장(044-203-4870)	담 당 자	김정윤 서기관(044-203-4831) 윤경민 사무관(044-203-5652) 장영빈 사무관(044-203-4871)

한-미 대(對)러 수출통제 굳건한 공조 확인

- 美, 한국에 대한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(FDPR) 예외 합의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 **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**은 3.3(목) 오후 14:45(현지시간) 워싱턴 디.시(D.C.)에서 **상무부 돈 그레이브스**(Don Graves) **부장관**과 **백악관 달립 싱**(Daleep Signh) **국가경제위원회(NEC)/국가안보회의(NSC) 부보좌관** 등 美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하였다.

○ 양측은 금번 면담에서 ❶한-미간 **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해외직접제품규칙(FDPR) 면제국가 협의**, ❷**인도태평양 경제 체제 협력방안**, ❸**철강 232조**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**고위급 논의를 진행**하고,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**굳건한 공조를 재확인**했다.

□ 특히, 이 자리에서 **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**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(well-aligned) 되었다고 평가하고, **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**(FDPR) **면제대상국에 포함**하기로 합의하였다.

○ 양국은 금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해외직접제품규칙(FDPR)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* 등이 **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**라고 평가하고, **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**를 **재확인**하였다.

* (韓) 무역안보정책관 - (美) 상무부 BIS 부차관보

○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해외직접제품규칙(FDPR) 면제국가 목록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.

□ 정부는 금번 미국의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(FDPR)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**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**에 들어가게 된다.

□ 여 본부장은 "금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**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**으로서 **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**하는 한편,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**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**하는 결과가 되었다"고 평가하고,

○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**인도태평양 경제 체제**(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, IPEF)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,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○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**무역, 공급망, 기반산업, 청정에너지** 등 **신통상 현안**들에 대한 **포괄적인 협력을** 위해 **인도태평양 경제 체제(IPEF)를 추진중**임을 **설명**하였다.

* 바이든 대통령이 EAS(동아시아 정상회의, 10.27) 계기에 '인도태평양 경제 체제' 구축 발표 - 무역 활성화, 디지털 경제·기술 관련 규범, 공급망 복원력, 탈탄소·청정에너지, 기반산업, 노동자 규범 등과 관련한 파트너 간 공통된 목표 규정 목적

○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ㆍ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

하고,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(IPEF)가 **개방성, 투명성, 포용성** 원칙에 따라 **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**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, **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**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□ 또한, 여 본부장은 **핵심 동맹국**인 **한·미간 공조기반 강화**를 위해 주요 현안인 **철강 232조치*** **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**될 수 있도록 美**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**하였다.

*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(쿼터)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가능
- 263만톤 : 2015-2017년간 연평균 대美 철강 수출물량의 70%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김정윤 서기관(☎ 044-203-4831), 윤경민 사무관(☎044-203-5652), 장영빈 사무관(☎044-203-48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